남가주 동신교회

가 정 예 배 지

2026년 11월 셋째주

도입 기도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성취의 압박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은혜를 깨닫고,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 I Have Found Sweet Rest

1.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2.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3.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4.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후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1. I have found sweet rest for my weary soul, Found a harbor safe tho' the billows roll, Found a Mighty One who can storms control,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2. When my way grows dark and no light I see, When my friends forsake and life's comforts flee, Then I know His grace will sufficient b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3. When my faith is weak He is near my side; When my heart grows faint He will strength provide; When the dangers press, Then will seas divid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4. There is naught too hard for my Lord to do; I can safely trust all life's journey through; He will bear me up, And my burdens too,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Chorus)
Oh, the everlasting arms, How they hold me, Ever hold me, and enfold me;
I am safe in life or death, For around and underneath Are the mighty, everlasting arms.

본문 요한복음 5장 16-18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John 5:16-18

16 So, because Jesus was doing these things on the Sabbath, the Jews persecuted him. 17 Jesus said to them, "My Father is always at his work to this very day, and I, too, am working." 18 For this reason the Jews tried all the harder to kill him; not only was he breaking the Sabbath, but he was even calling God his own Father, making himself equal with God.

설교

우리는 끊임없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학업과 인간관계, 성취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무언가를 더 이루어 내면 마침내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진정한 안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을 앓아 온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그는 자신을 물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낫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요 5:8)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즉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위해 구별하신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병자가 치유받은 것을 기뻐하기보다 그가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간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규례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눈앞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육체적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일을 멈추고 쉬는 순간에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마음 때문에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공과 인정, 성취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마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더 이상 열심히 공부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노력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존재이기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일을 믿고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설교

We live in a world that constantly pressures us to work harder, achieve more, and become better. Whether in our academics, relationships, accomplishments, or even our spiritual lives, we often feel the need to prove our worth. We believe that if we just work a little harder or accomplish one more thing, we will finally find satisfaction and peace. Yet, no matter how much we achieve, true rest often remains beyond our reach. In John 5, Jesus encounters a man who has been disabled for 38 years. For decades, he has been waiting by the pool of Bethesda, hoping to be healed. When Jesus asks him, “Do you want to be healed?” the man responds by explaining that he has no one to help him into the water. He is trapped in a helpless condition that he cannot change through his own efforts. Yet, even when Jesus asks him a direct question, he fails to give a direct answer. Like this man, we often try countless ways to accomplish things that are ultimately beyond our own ability. But Jesus simply commands him, “Get up, take up your bed, and walk” (John 5:8). Immediately, the man is healed. Jesus accomplishes what the man could never accomplish through his own efforts. Interestingly, this miracle takes place on the Sabbath, a day God set apart for rest. However, rather than celebrating the man's healing, the religious leaders criticize him for carrying his mat on the Sabbath. They are so focused on religious regulations that they fail to recognize the amazing work of God taking place right before their eyes. Jesus responds,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and I am working” (John 5:17). Jesus reveals that He is carrying out the Father's work of restoring broken humanity and bringing true life. What we truly need is not merely physical rest but deep spiritual rest for our souls. Even when we stop working and take a break, our hearts often remain restless because we are constantly trying to prove our worth. We seek our identity and value through success, recognition, and accomplishments. Sometimes, we even turn our spiritual activities into efforts to earn God's love. But the gospel declares something radically different: We do not need to strive endlessly to earn God's love and acceptance because Jesus ha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necessary for our salvation. On the cross, Jesus declared, “It is finished” (John 19:30). The finished work of Christ is the very foundation upon which we can experience true rest. This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stop studying hard, doing our best, or serving God faithfully. Rather, it changes the reason behind everything we do. We no longer work to prove our worth or earn God's love. Instead, we give our best out of gratitude because we are already loved and accepted in Christ. True rest does not come from accomplishing everything through our own efforts, but from trusting and depending on what Jesus has already accomplished for us.

나눔질문

1. 38년 된 병자처럼 내 힘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무기력함을 느꼈던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Like the man who was ill for 38 years, what is an issue in your life where you felt helpless because you could not solve it by your own strength or methods?
2.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매여 있던 적은 없었나요?
   Even in your faith life, have you ever felt bound by a sense of obligation that you must do more to earn God’s love?
3.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와 자유를 주나요?
   What comfort and freedom does Jesus’ declaration on the cross, "It is finished" (John 19:30), bring to you today?

마침기도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자녀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평안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ord, we thank You and believe that we are already fully loved and accepted as Your children in Christ. Throughout this week, help us rely on Your grace rather than our own efforts to enjoy peace, and live with grateful hearts doing our best.In Jesus' name we pray. Amen.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